

〈기획 연구〉

경영정보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설계와 운영 방안 : K대학 e-비즈니스학과 사례를 중심으로

오 창 규* · 이 홍 결** · 김 성 후***

〈목 차〉

I. 서론	IV. JSSS 구축
II. 교육과정 개편 현황과 문제점	4.1 JSSS의 개요 및 기능
2.1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4.2 JSSS의 데이터베이스와 모델베이스
2.2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접근 방법과 한계점	4.3 JSSS의 인터페이스
III. 교육과정 개편 결과	V. 결론
3.1 교육과정 특성화 방향	참고문헌
3.2 GE형 인재	<Abstract>

I. 서론

고등교육 개혁과 지방대학 육성에 따라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을 기반으로 삼아 최근 대학들은 고등교육 개혁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이에 많은 대학들이 교수 및 학습자의 질 제고, 교육 환경 개선, 재정 규모, 그리고 행정 구조적인 측면 등 다양한 방면에서 경쟁력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학교육 경쟁력의 출발점이자 교육의 핵심은 교육과정 개혁

이라고 볼 수 있다.

대학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운영 과정을 ‘투입-과정-산출’의 시스템 측면에서 접근할 때, 교육과정은 과정 요소에 해당될 수 있다(신정철 외, 2011). 이 때, 대학 및 학과의 질(quality)이나 성과 측면에서 대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투입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같은 과정적 요소도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한다. 따라서 대학의 교육과정은 각 대학의 특성화된 목표,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 교육의 전체 열개가 된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또한 대학

* 경남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 교신저자, cgoh@uok.ac.kr
** 경남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부교수, hglee@uok.ac.kr
*** 경남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조교수, arrayiv@uok.ac.kr

생들에게 의미 있는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엇을, 왜, 어떻게 가르치고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한 것이 교육과정이다(한혜정·조덕주, 2012). 하지만, 교육과정을 학습될 교과목의 목록으로 한정함으로써 소극적이지만 보다 단순하면서도 명확하게 범위를 정할 수도 있다(김혜영, 2015).

교육과정 개발은 대학의 교육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내용을 선정·조직·실천·평가하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계획이다(이성호, 2004). 따라서 교육과정 개발은 교육활동을 통해 어떤 유형의 학생을 양성할 것인지, 어떤 교육 내용을 선정할 것인지, 교육 내용을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 의사결정 수행하는 준엄한 과정이다.

따라서 대학의 특정 학과에서 교육과정을 개선할 때는 해당 학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교육 목표에 맞게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졸업 후 배양된 전공 역량을 기반으로 주체적이고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 때, 학생들이 전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전공 교육의 틀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경영정보학의 경우 전공 특성상 융복합적 성향을 가지고 있으며, 졸업생들의 직무 수행 측면에서도 문제해결 중심의 융복합 능력이 요구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과정을 개발할 때 전공과 직무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을 편성할 때, 학과의 정체성 확립과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대학 e-비즈니스학과에서 추진된 사례를 토대로 직무수행 능력 중

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절차와 결과물을 제안하고자 한다. 보다 세부적으로 먼저 직무를 기반으로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접근과 문제점을 고찰함으로써 경영정보학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편성의 방향을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e-비즈니스학과 교육과정 설계를 위한 인재상 및 직무 수행 영역을 범주화함으로써 직무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편성 결과를 제시한다. 그리고 기존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본인의 직무 수행 영역을 탐색하고 직무 능력 수준을 기능함으로써 맞춤형 취업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직무탐색지원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II. 교육과정 개편 현황과 문제점

2.1 기존 교육과정 운영의 문제점

K대 e-비즈니스학과의 경우 2004년 3월 1일자 e-비즈니스학부로 신설되었으며, 이후 2012년 3월 1일자로 기존의 e-비즈니스학부(전자상거래전공, 경영정보학전공)에서 e-비즈니스학과의 단일 학과로 변경되었다. 이 때, 학부제에서의 교육과정이 학과제 교육과정으로 축소 운영됨에 따라 대폭적인 교육과정 개편을 수행하였으나, 2015년 현재 대학특성화를 위한 전공 교육과정 개편 사업에 맞물려 학과 발전을 위한 미래 지향적인 설계의 필요성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서 그간의 운영 성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기존 교육과정 운영 측면에 있어 학

과 차원과 학생 차원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학과 차원에서 운영 문제점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우선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상의 한계가 목격되었다. 기존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이수 맵(map)을 통해 선행 및 후행 교과목의 연계성과 졸업 후 진로 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이수체계도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 볼 때, 전공 선택의 상황에서 해당 트랙을 옮길 수 있는 현실적 여건을 마련하기 힘들었다.

그리고, 특성화 혹은 비교과 교육의 운영상 문제점으로서 다양한 비교과 및 특성화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였으나, 학생들의 인내심 부족 및 학기 중 운영의 어려움이 존재하였다. 또한 기계 산업의 비중이 높은 지역 산업의 특성과 지방 대학으로서 수도권과 비교시 상대적으로 신입생 자원의 한계점도 존재하였다.

기존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학생들 자체적으로 존재하는 문제점을 찾을 수 있었다. 첫째, ‘취업’ 자체에 대한 고민이 만연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어려운 취업 관문을 본인 스스로 통과할 수 있을지, 그 자체에 대해 고민함으로써 학과 전공 공부 보다는 취업을 위한 준비에 더 큰 열의를 가지는 학업의 왜곡이 발생되고 있다.

둘째, 전공과 적성에 대한 불일치가 존재한다. e-비즈니스학과 전공 특성상 경영 관련 교과목과 ICT 관련 교과목이 서로 융합될 수밖에 없다. 이 때, 서로 떨어진 두 영역을 모두 학습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자칫 학과 전공 영역에 대한 본인의 적성 불일치로 잘못 인식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셋째, 학과 및 전공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겪

고 있다. 실제 전공 영역으로서 경영정보학의 토대 위에 도메인으로서 e-비즈니스라는 무한한 영역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경영 관련 졸업생들 혹은 ICT 관련 전공자들과 단편적 비교를 통해 본인 스스로 비교 경쟁 우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는 우(愚)를 범하고 있다.

넷째, 전공 관련 직무에 대한 정보 부족을 들 수 있다. 최근 기업 내 특정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다양하고 복합적인 능력이 요구되기에, 학과 내 교과목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다. 그럼에도 졸업 선배들의 상이한 직무 영역을 보거나, 학생들 입장에서 교과목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직무 영역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인하여 전공 관련 직무에 대해 충분한 인지를 하지 못함으로써 본인이 전공으로부터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 충분히 지각하지 못하고 있다.

2.2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접근 방법과 한계점

기존의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졸업생들이 능력에 맞춘 취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전공 관련 직무를 중심으로 한 교육과정 개편은 반드시 요구된다. 이 때,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수요자 측면에서 학생과 산업체 측면,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적용 측면, 그리고 타 대학의 교육과정 벤치마킹 등을 통해 본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을 위한 접근 방법을 검토하였다.

(1)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과 문제점

교육과정은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공급자 측면의 이론 중심에서 수요자 측면의 실무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다.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이해하고 학생의 진로 및 경력 개발에 부합될 수 있으며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식 전달형에서 체험적,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으로의 전환에 대한 요구에 따라 전공 교육과정은 개편되어야 한다(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이를 위해 본 학과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 차원에서 교육체제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의 수요자로서 학생과 관련 산업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요구하는 학과 교육과정 개편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 및 교과목과 방향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① 수요자로서 학생 대상의 교육과정 조사

우선 현재 재학 중인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기존 교육과정 만족도 조사 및 개편 방향에 대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 내용은 교과 내용의 충분성 및 균형 정도, 교육과정의 체계성 정도, 그리고 개별 교과목에 대한 체계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보다 신뢰도 높은 응답을 이끌어 내기 위해 기존 교육과정 체계에 대한 교육 및 개별 교과목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실시하였다.

하지만, 재학생들을 상대로 교육과정에 대한 현재 만족도와 향후 방향성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뒤따랐다. 특히 아직까지 배우지 못한 교

과목들에 대해서는 단순히 교과목 명칭만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발생되었다. 예를 들면,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지는 ‘시스템 분석 및 설계’ 교과목에 대해서는 낮은 만족도를, ‘인터넷 마케팅’ 같은 경우는 높은 만족도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과 명칭과 유사한 교과목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교과목으로 인지하였다.

이후 졸업생을 대상으로 기존 교육과정의 실태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대상은 2012, 2013, 2014년도 졸업생으로서 2015년 8월 1일부터 9월 11까지 전화 인터뷰를 통한 설문조사 및 일부 졸업생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설문 내용은 크게 교육과정에 대한 질문과 전공 분야에 대한 직무 관련성으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학부 때 기억에 남는 과목, 취업에 도움이 되었던 과목, 후배를 위해 추천하고 싶은 과목, 신규로 개설되기를 원하는 과목과 이유 등을 질문하였다. 아울러 현재 직무를 수행이나 탐색함에 있어 전공 교과목의 관련성과 현재 업무 수행이나 취업 탐색에 전공 지식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졸업생의 현재 진출 분야 혹은 직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깊은 교과목을 추천하는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특히 폐지 희망과목이나 신설 요청과목의 대부분은 본인의 현업에 직접적인 관련성 여부에 따른 실무과목 및 자격증과 관련된 과목으로 요약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졸업생의 의견을 토대로 전공 교과목에 대한 교육과정 설계에 직접적인 시사점을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② 수요자로서 기업체 대상의 교육과정 조사

기업체를 대상으로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

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은 지역 ICT 관련업체, 경남 테크노파크, 그리고 본 학과의 졸업생을 고용한 기업 등이었으며, 2015년 5월 11일부터 6월 11일까지 인터넷 설문 조사를 통해 실시되었다. 설문 내용은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 체계성 정도, 교과목 체계성 정도, 교과내용의 충분성, 교과내용 균형 정도, 그리고 전공 교육 이외의 보유 능력 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해당 기업의 주력 산업과 관련이 깊은 교과목과 그렇지 않은 교과목에 대한 인식차이와 기업 대표가 가지고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마인드에 따라 매우 극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e-비즈니스학과 관련 졸업생의 경우 실제 프로그래밍 능력이나 특정 소프트웨어 활용 능력을 비롯한 전공 실기 능력이 약하므로 전공 실습을 산업체의 요구에 따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전공 교육과정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보다는 대학 교육 전반에 대해 인문학(윤리), 인성관련 교과목, 외국어 교육 등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다. 이렇게 상반된 의견은 산업계 관리자 측면에서 생산성과 조직의 발전 잠재력 양측에 대한 무게중심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예상된다.

③ 수요자 중심 교육과정 개편의 한계점

개별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을 위한 학생 및 산업체의 의견을 반영한 조사는 교육 수요자인 학생 및 산업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요자 중심 교육을 통한 이론과 실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교육과정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길성, 2010). 이 때, 대학 교육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체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체의 만족도와 요구조사 체계를 통해 대학에게 피드백 할 수 있는 구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지식기반사회가 요구하는 대학 교육이 대학 현장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기에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중요한 기본 능력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4).

하지만, 본 학과에서 교육과정 개편을 위해 수요자인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 조사 결과는 이에 대해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 이유로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과거 박종렬(2004)의 교육정책 연구가 수행된 지 10여 년이 흘렀지만, 오늘날의 상황도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계에서 대학 교육의 취업 지원 측면을 바라볼 때, 예나 지금이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항상 존재하고 있다. 이는 대학과 산업체간의 연계를 위한 체제화의 필요성도 존재하지만, 이보다 산업체 및 대학의 대학 교육에 대한 인식 변화도 요구된다. 즉, 산업체의 경우 근시안적인 특정 전공 교과 내용의 변형에 대한 요구보다는 대학 교육의 학업 성취 및 원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場)으로서 대학을 바라봐야 할 것이다. 반면, 대학의 경우 교양교육의 강화를 통해 산업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성 교육에 치중하며, 산업연계교육의 강화를 통해 대학 교육에 대한 기업의 평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교육과정에 대한 범위의 차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즉, 교육과정을 대학의 특성화된

목표, 학습자와 사회의 요구 등을 반영하는 교육의 열개(한국대학교육협의회, 2011) 측면에서 접근할 때, 수요자 중심의 접근법은 유용하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학과 자체적으로 학습될 ‘전공’ 교과목의 목록과 체계를 정하는 좁은 의미의 교육과정 개편에 있어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의 경우에는 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모 대학의 경우 교육체제의 차별화 및 특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의 수요자인 학생들이 요구하는 대학 전체의 교과과정 개편 및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배양하고자 노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교양과목 개편에는 반영되었지만, 전공 교과목 개편에는 어려움을 토로하였다.

(2) NCS형 교육과정 개편과 문제점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은 산업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기술·소양 등의 내용을 국가가 산업부문별·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으로, 산업현장의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지식, 기술, 태도)을 국가적 차원에서 표준화한 것이다.

오늘날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고려할 점은 최근의 직업교육 패러다임을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은 공급자 중심에서 산업체 및 학습자 등 수요자 중심으로, 학문중심에서 역량중심으로 교육이 변화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 교육은 선진국에 비해 산업현장 보다는 학과 중심이며, 산업체의 직업모듈 보다는 과목 중심으로 편성되어 있다. 교육훈련시간에 있어서도 시간이수가 수료 요건이 되고, 자격취득이

교육훈련의 목표가 되고 있어 산업 현장과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구자길·강순희, 2011).

이에 변경숙 등(2014)은 외식호텔조리산업 계열에서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고등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한 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을 수행하였고,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제안하였다. 김혜영(2015)은 NCS기반 교육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를 고등교육 측면에서 정리하여 교육과정 개발 모형을 기준으로 NCS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실제 정보기술 기획 분야의 교과 설계를 수행하였다. 하지만, NCS형 교육과정을 본 학과의 교육과정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일반적 측면과 e-비즈니스학과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① NCS 교육과정 적용의 일반적 문제점

우선 4년제 일반적인 고등교육기관의 대학 교육목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기대 직무에 따른 능력을 길러주는 직접적 교육 목표를 보유한 직업교육기관이나 국가 수준의 교육 목표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중등교육기관의 경우에는 NCS에서 제시하는 직무에 따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것이 혼선이나 중복 투자를 줄일 수 있으며 국가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일반 대학의 경우 대학 교육의 목표에 대해 교양을 갖춘 시민적 인간의 양성과 전문적 기능인의 양성이라는 고민 속에서 학문과 지식을 탐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식기반 사회에서의 대학의 주된 기능은 지식을 창출, 가공, 분배하고 활용함으로써 사회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이는 대학 구성원들의 연구에 의존한다(강선보, 2006; 박민정, 2008). 따라서 대학의 교육은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식의 창출에 역점을 기울여야 한다(김도연·권영중, 2011). 이 때, NCS는 지식의 전달 측면에서는 산업부문별로 체계적 구조 속에서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지만, 지식의 창출 관점에서 NCS형 교육은 쉽게 적용되기 힘들다.

둘째, 대학 교과과정 편성의 특수성이다. 일반적으로 대학의 교과과정은 대학의 최상위 교육 비전이나 목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학과 구성원들이 보유한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즉, 학과 교수들의 (세부) 전공 영역이 교육과정에 전반적으로 녹아들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학과명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대학마다 교육과정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것이 학과의 색깔을 만들어 타대학 졸업생 간 비교 우위의 전공 역량이 부여될 수 있도록 만든다. 하지만, NCS의 경우 산업 현장에서의 실무 능력과 실행에 초점을 맞춘 표준화된 인재 양성에 보다 역점을 두기 때문에 서로 상이한 전공 역량을 보유한 일반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셋째, 이론과 실무의 균형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학의 교육은 현실에 적용되고 있는 실무의 토대가 되는 기초 지식의 습득과 함께 미래 사회의 대응을 위한 미래지향적인 이론적 지식을 배양해야 한다. 대학이 지속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직무

능력보다는 이론적 지식 위에서 도전과 실수를 통해 충분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② 학과 측면에서 NCS 교육과정 적용의 문제점

현행 NCS에서의 “e-비즈니스”는 영업판매 하위 영역에 속하는 판매활동의 한 형태로,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e-비즈니스”의 정의와 크게 벗어나고 있다. 즉, NCS의 학습모듈 검색에서 분야별 검색 수준을 따를 때, ‘10. 영업판매 >> 03. 판매 >> 01. e-비즈니스 >> 02. 전자상거래’로서 e-비즈니스학과의 e-비즈니스는 영업 판매의 하위 영역에 속하는 판매 활동이 아니라, 경영 관련 지식과 ICT 관련 지식이 융합되어 기업 경영에서 ICT를 통한 비즈니스 인텔리전스화를 지향하는 보다 포괄적인 상위 개념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NCS에서 제안된 직무정의 및 직무기술서를 따라 교육과정이 개편될 경우 학과의 정체성 및 범위가 크게 축소될 수 있다.

하위 직무관련 능력 단위에는 적용이 가능한 영역이 존재하지만, 상위 분류 체계에서는 다소 동떨어진 측면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정보 시스템 운영의 상위 체계는 ‘20. 정보통신 >> 03. 방송기술 >> 03. 방송서비스’이며, 시스템 기획은 ‘08. 문화, 예술, 디자인, 방송 >> 03. 문화콘텐츠 >> 02. 문화콘텐츠 제작 >> 05. 게임콘텐츠 제작’ 영역에 속해 있으며, 해당 직무기술서도 방송 혹은 게임 콘텐츠에 치중되어 있다. 정보기술영업의 경우 정보기술 영역과 마케팅 영역을 아우르는 상위 개념이 될 수 있음에도 ‘20. 정보통신 >> 01. 정보기술 >> 05.

정보기술영업 >> 01. IT기술영업'에 포함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직무 범위가 축소되어 있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3) 타 대학 교육과정 벤치마킹

대다수의 경영정보학 관련 학과에서 교과목 명칭이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지만, 경영학원론, 회계학원론, (인터넷)마케팅, 재무관리, (IT)경영(혁신)전략, 경영통계, 경영정보시스템, e-비즈니스, 시스템분석및설계, 전사적자원관리, 고객관계관리, 기술경영(생산경영),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 정보통신 등과 같은 교과목은 대부분 개설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공통 교과목의 기반 위에 학과(부) 혹은 전공의 특성이나 교육의 방향에 따라 보다 특징적인 교과목들이 포함되었으며, <표 1>과 같이 해당 영역이 강조된 교과목별로 요약하였다. 이 때 해당 교과목 명칭은 개설된 대학마다

조금씩 상이하다. 예를 들면, 건국대는 IT Entrepreneurship, 호서대는 벤처기업가정신, 계명대는 경영정보윤리론, 건국대는 기업윤리 등으로 개설되어 있으나, 이를 '기업가정신'으로 명칭을 임의로 단일화하였다.

벤치마킹을 위해 살펴본 대학들의 경우 특성화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특성화 학과로 변모하거나 타 학과(부)와 통합을 통해서 융합적 측면을 강조하는 등 대다수의 대학들이 공통적인 교과목의 토대 위에 특성화 프로그램이나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이후 몇 개 대학의 교수들과 보다 심층적인 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과 관련되어 향후 어떠한 방향을 따라야 할지를 논의하였다. 그 결과, 각 학과(전공)별로 독립적인 위상 정립을 위해서 ICT 추세에 부합될 수 있는 실무 과목들과 특정 직무 수행을 위한 기술이나 테크닉의 배양 측면을 강조하는 교육과정과 반대로 특정 분야

<표 1> 타대학 교과목 벤치마킹

영역	교과목 예시
실무 관련 측면	경영S/W활용(고급엑셀), 웹그래픽(디자인), 경영시뮬레이션게임, 빅데이터, 데이터분석 등
경영/경제학 측면	조직관리, 인사관리, 생산(산업)경영, 경제학, 기업가정신, 경영과학, 프로젝트관리, 금융 및전자화폐 등
IT/IS 측면	정보시스템관리(거버넌스), ISP, 기능별 IS, 정보자원관리, 비즈니스 프로세스, 지능정보/비즈니스인텔리전스, 디지털 콘텐츠 등
전공 관련 교양	문제해결기법, 실용프리젠테이션, 경영정보학전공글쓰기, CEO포럼, 창의성과혁신, 지적재산권과특허경영, 정보미디어개론, 정보통신경영, 테크놀로지경영과사회이론, 비즈니스 영어 등

1) 건국대 경영·경영정보학부 경영정보학전공, 경상대 경영정보학과, 계명대 경영학부 경영정보학전공, 국민대 경영정보학부, 동국대 경영정보학전공, 동명대 경영정보학과, 동아대 경영정보학과, 동의대 경영정보학과, e비즈니스학과, 명지대 경영정보학과, 아주대 e-비즈니스학과, 호서대 경영학부 디지털기술경영전공 이상 11개교 (학교명 가나다순, 2015년 7월 현재)

의 편향성 보다는 교과목 전체의 균형성을 중시함으로써 융합이라는 보다 범용적인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운용으로 대별되었다.

Ⅲ. 교육과정 개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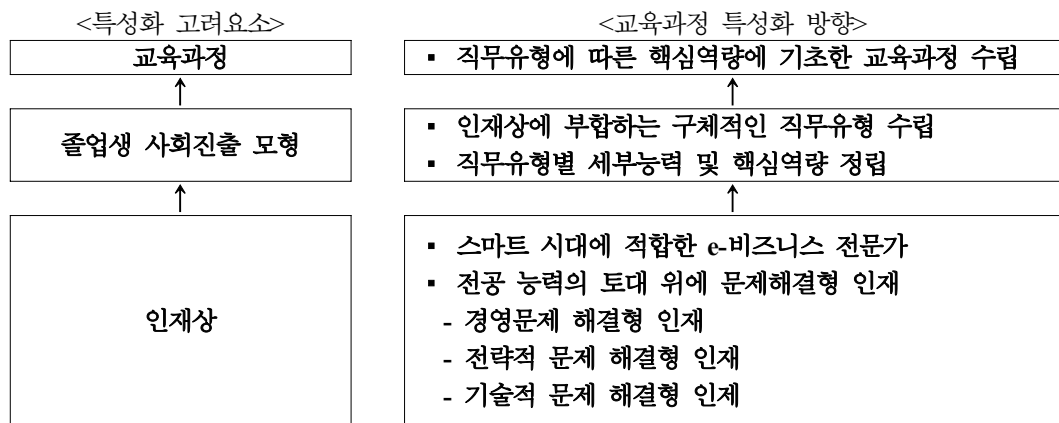
3.1 교육과정 특성화 방향

K대 e-비즈니스학과의 교육과정 개발 목표는 학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공 역량을 최대한으로 배양함으로써 졸업생들이 능력에 맞는 취업 전략을 설계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교육과정 개편 접근방향을 살펴보았다. 우선 교육과정 차별화 및 특성화를 위해 수요자로서 학생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객관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힘들었다. 이후 수요자로서 산업체 중심의 접근법에서는 객관성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으나,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였으며, 외부

전문가들의 견해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음으로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편은 국가에서 정한 표준화된 지침으로서 객관적이며 공식적인 측면은 보장 되었다. 그러나 교육 능력의 세부 단위 측면에서는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지만, e-비즈니스학과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타대학 교육과정을 벤치마킹한 결과 각 대학마다 공통적인 교과목의 토대 위에 자체적으로 특성화 프로그램 혹은 교과목을 운영함으로써 각 대학(학과)의 특성에 기반을 두어 서로 상이한 인재상 혹은 교육 목표가 존재하였다.

결국 학과 차원에서 교육과정을 구축하거나 개선할 때, 해당 학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교육 목표에 맞게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학생들이 전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교육과 연구를 담당하는 학과 교수들의 지혜를 모으는 내부로부터의 고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SWOT 분석을 통해 경쟁력 확보를 위



<그림 1> 교육과정 개편 특성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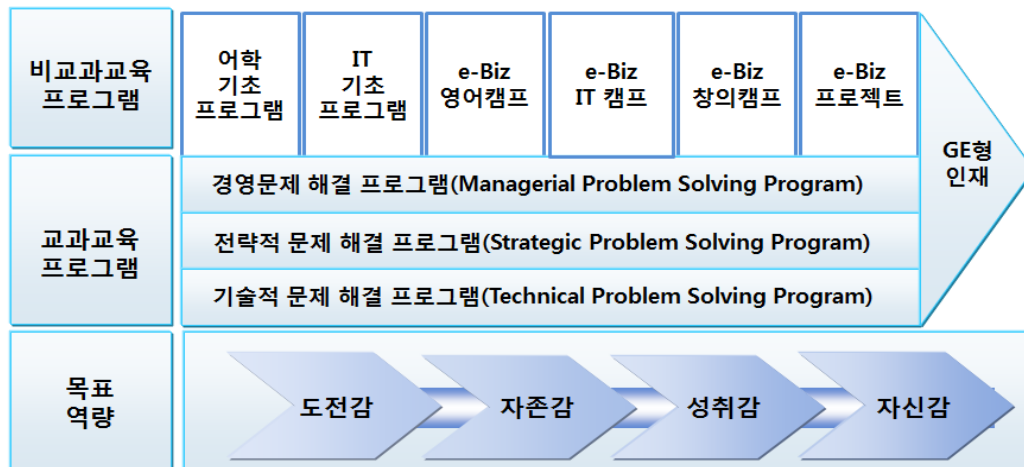
한 방안에 대해 고민하고, 특성화 방향 수립을 위해 인재상, 졸업생의 사회진출 모형,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핵심적인 요소로 고려하였다. 각 요소에 따른 학과의 교육과정 특성화 방향을 <그림 1>과 같이 요약하였다.

본 학과의 교육과정 개편의 핵심은 졸업 후 수행할 수 있는 직무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학과의 특성에 기반을 두어 대다수 학생들을 위한 보편적 수준의 진로 방향으로서 학문의 융복합적 특성과 졸업생 진출분야 및 직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인재상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직무 기반의 문제해결형 교육 프로그램을 구성함으로써 직무 유형별 핵심역량 달성에 필요한 교과목을 발굴하고 개발하였다. 이를 통해 학생들에게 전공에 대한 자신감을 부여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그 결과 가치사슬 모형에 착안하여 <그림 2>와 같은 구성 모델을 만들었다. 이 때, 학과 전공교육과정에 직접적인 교과교육 프로그램과 학생들의 역량 제고를 위한 비교과 교육프로그램을 구성되었다. 이러

한 과정을 통해 자신의 가치 및 목표 역량을 점진적으로 향상되어 GE형 인재로 거듭나도록 구성하였다.

3.2 GE형 인재

본 학과에서는 현재 교육과정의 운영 한계를 극복하고, 전공분야의 졸업생이 수행할 직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교과목으로 반영하기 위해 총체적으로 교육과정을 개편하였다. 향후 e-비즈니스학과를 졸업한 학생이 취업 혹은 창업하였을 때,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회사에서 당면하고 있는 보편적 수준의 진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직무와 연계된 취업을 달성할 수 있는 메커니즘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아울러 최대한 e-비즈니스 관련 직무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모형화한 ASK(Attitude, Skill, Knowledge) 모델에 적합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GE(Generalized Expert)형 인재’ 양성이라는



<그림 2> 교육과정 구성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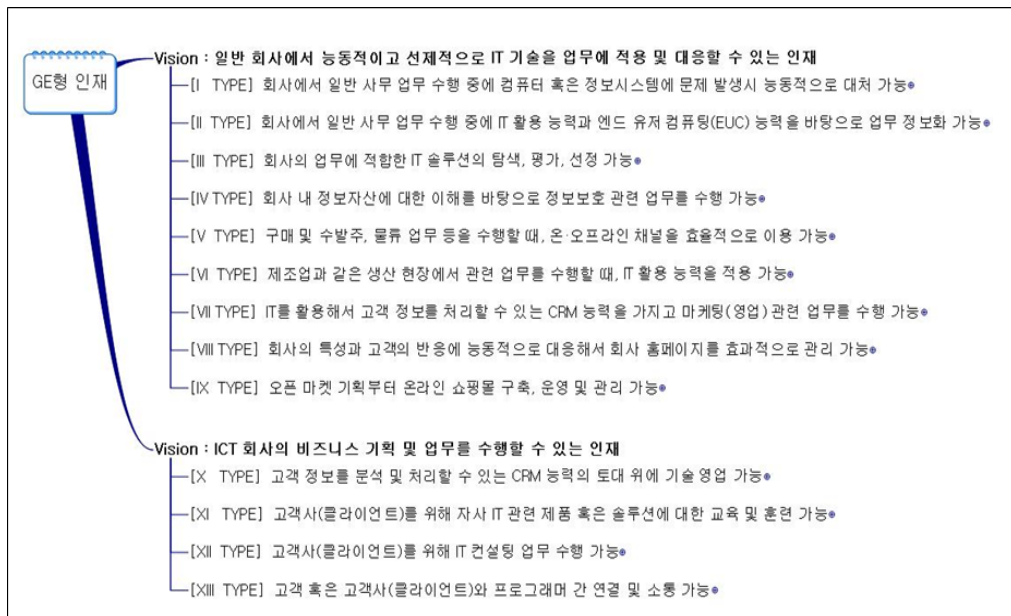
학과의 인재상을 달성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편 방향이 도출되었다.

GE형 인재는 진출분야에 따라 크게 다음의 두 가지 인재상으로 세분화된다. 첫째, 일반 회사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ICT 기술을 업무에 적용 및 대응할 수 있는 인재이다. 이는 새로운 ICT 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변화관리자, 기업 정보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새로운 IT/IS가 출시되었을 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파워 유저(얼리 어답터),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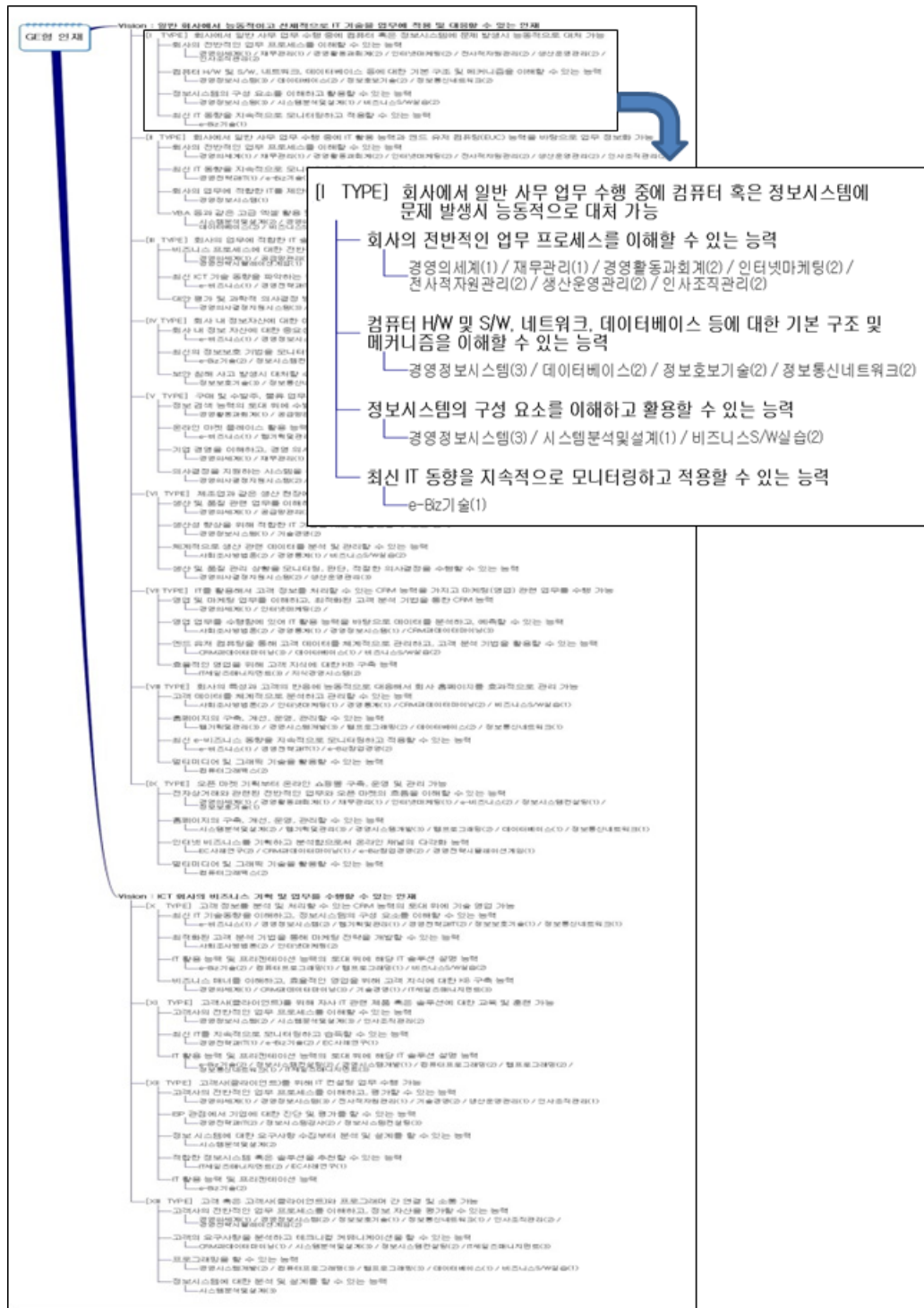
둘째, ICT 회사의 비즈니스 기획 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재이다. 이는 ICT 제품에 대한 전문 세일즈 매니지먼트가 가능한 인재, 비즈니스 마인드와 기술 마인드 모두를 보유한 융복합 인재, ICT 관련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해당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을 제안 및 개발할 수 있는 인재를 포함하고 있다.

이에 학과 교수들의 워크숍을 통해 그간의 연구, 교육, 학생지도의 경험과 외부 전문가의 견해를 바탕으로 직무 분석 대상에 대한 개괄을 살펴보고 직무 군을 분류하여 직무 수행 능력과 그에 따른 필요 교과목, 그리고 교과목의 중요도 등에 대해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수렴하였다. 그 결과 본 학과에서 배출하는 GE형 인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13가지 직무 타입을 <그림 3>과 같이 제시하였고, <그림 4>와 같이 각 직무유형에 따른 핵심역량과 해당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과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수립된 학과 핵심역량과 대학 핵심역량과의 관계를 포함해서 <표 2>와 같이 13가지 직무 타입별로 요약하였다.



<그림 3> GE형 인재의 직무유형



<그림 4> 직무 유형에 따른 핵심역량 및 필요 교과목

<표 2> 직무 유형별 핵심역량과 대학 핵심역량과의 관계
(직무 타입 I 예시)

직무 TYPE	I				
설명	회사에서 일반 사무 업무 수행 중에 컴퓨터 혹은 정보시스템에 문제 발생시 능동적으로 대처 가능				
비전	일반 회사에서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IT 기술을 업무에 적용 및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인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ICT기술을 활용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변화관리자 ✓ 기업 정보시스템에 문제 발생 시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재 ✓ 새로운 IT/IS가 출시되었을 때,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파워 유저 혹은 얼리 어답터 ✓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 				
필요 능력	A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			
	B	컴퓨터 H/W 및 S/W,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 등에 대한 기본 구조 및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			
	C	정보시스템의 구성 요소를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D	최신 IT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적용할 수 있는 능력			
필요 교과목	A	경영의세계/재무관리/경영활동과회계/인터넷마케팅/전사적자원관리/생산운영관리/인사조직관리			
	B	경영정보시스템/데이터베이스/정보보호기술/정보통신네트워크			
	C	경영정보시스템/시스템분석및설계/비즈니스S/W실습			
	D	e-Biz기술			
교과목 중요도	매우 중요	경영정보시스템			
	중요	경영활동과회계/인터넷마케팅/전사적자원관리/생산운영관리/인사조직관리/데이터베이스/정보보호기술/정보통신네트워크/비즈니스S/W실습			
	필요	경영의세계/ 재무관리/시스템분석및설계/e-Biz기술			
대학 핵심 역량		A	B	C	D
	전공식활용	◎	◎		
	문제해결 역량		○	◎	◎
	글로벌 역량				
	의사소통 역량				
	자기관리 역량				
	책임, 봉사 역량				

IV. JSSS 구축

4.1 JSSS의 개요 및 기능

개선된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법 중에서 많은 대학 혹은 학과에서 트랙제를 운영하거나 선행·후행 과목의 연관 맵을 작성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과정을 운영함에 있어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들이 이수체계를 그대로 따르지 않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이에 본 학과에서는 교육과정의 개편 결과물로서 기존 트랙제 교육과정 운영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사회 진출을 앞둔 학생들이 본인의 직무 수행 영역을 탐색하고 직무 능력 수준을 가늠함으로써 맞춤형 취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직무탐색지원시스템(이하 JSSS : Job Searching Support System)을 구축하였다.

JSSS는 경남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고학년 학생 및 졸업 예정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이 수강했던 교과목들과 취득한 학점을 토대로 전공 영역 내에서 진로에 가장 부합될 수 있는 직무 영역을 탐색하여 추천하고, 해당 직무 영역에 따라 본인의 달성 정도를 제시하며, 보다 고도화된 직무 수행을 위해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는 교과목을 추천함으로써 본인의 진로 설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웹 기반의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다.

JSSS는 크게 세 가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직무 추천 기능으로서 특정 학생이 과거에 수강한 교과목들에 대해 부합도를 구함으로써 13가지 직무 타입 중에서 해당 학생에게 가장 적합한 3 가지 직무 타입을 제안한다. 둘째, 직무 달성도 제공 기능으로서 특정 학생이

과거에 수강한 교과목들과 취득한 학점을 토대로 달성도를 구함으로써 추천된 3가지 직무 타입 별로 얼마나 해당 직무 능력에 도달하였는가를 제시한다. 셋째, 직무 달성도 향상을 위한 교과목 추천 기능으로서 달성도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추천함으로써 특정 직무 타입에서 직무 능력을 최대한으로 올릴 수 있는 교과목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신규 교과목을 수강해야 할지 아니면 기이수 교과목을 재수강해야 할지에 대한 의사결정을 지원한다.

4.2 JSSS의 데이터베이스와 모델베이스

(1) JSSS의 데이터베이스

본 학과는 교육과정을 개편함에 있어 직무 분석 대상에 대한 개괄을 살펴보고 직무 군을 분류하여 직무 수행 능력과 그에 따른 필요 교과목, 그리고 교과목의 중요도를 브레인스토밍을 통해 수립하였다. 그 결과 GE형 인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13가지 직무 타입과 각 직무 유형에 따른 핵심역량과 해당 핵심역량을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교과목, 그리고 교과목의 중요성을 필요/중요/매우 중요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실제로 특정 학과의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모든 교과목들은 전공 지식을 배양함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교과목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특정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 교과목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할 수도 반대로 덜 중요할 수도 있다. 이에 특정 직무 타입을 수행하기 위해 선택된 교과목들에 대해, 필요로 하는 교과목, 중요한 교과목, 매우 중요한 교과목 등으로 분류하고, 그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였다. 이

에 대한 결과를 <그림 6>과 같이 데이터베이스화하였다. Y축은 교과목 코드 번호를 의미하며, X축에는 직무 타입에 따른 해당 교과목과 교과목의 중요성을 점수화해서 입력하였다.

이다. 이를 위해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들과 각 타입 별로 요구되는 교과목들의 일치도를 배열식으로 비교하였다. 그 결과 특정 학생의 직무 타입 별 부합도 점수를 구해 가장 높은 상위 세 가지 타입을 추출하여 결과로 제시하였다. 부합

인재상 교과목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XIII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Type	Weight		
A1	A1	1	A1	1	A1	1																						
A2	A2	1	A2	1					A2	1								A2	1									
A3	A3	2	A3	2					A3	1								A3	1									
A4											A4	2		A4	2	A4	2			A4	2							
A5	A5	2	A5	2										A5	2	A5	1	A5	1	A5	2							
A6											A6	1		A6	1	A6	1											
A7					A7	1			A7	3	A7	2																
B1					B1	1	B1	1	B1	1					B1	1	B1	2	B1	1								
B2	B2	3	B2	1	B2	3	B2	1						B2	1	B2	1			B2	2	B2	2	B2	3	B2	2	
B3	B3	1	B3	2	B3	1												B3	2			B3	3	B3	2	B3	3	
B4							B4	1						B4	2													
B5									B5	2						B5	3	B5	3	B5	1							
B6			B6	1	B6	2	B6	1							B6	1			B6	2	B6	1	B6	2				
B7	B7	2	B7	2					B7	3	B7	1																
B8					B8	2	B8	2																B8	2			
B9			B9	1	B9	3			B9	2	B9	2																
B10					B10	1			B10	1																		
B11														B11	3	B11	2	B11	1	B11	3					B11	1	
B12	B12	1	B12	1	B12	2	B12	2											B12	2	B12	2	B12	2				
B13					B13	1			B13	1	B13	2							B13	1								
B14									B14	2						B14	2	B14	2									
B15					B15	3	B15	1														B15	2	B15	3	B15	2	
B16			B16	1											B16	3	B16	3			B16	1				B16	2	
C1			C1	2														C1	1	C1	2				C1	3		
C2			C2	1														C2	2	C2	2	C2	1	C2	2		C2	3
C3	C3	2	C3	2										C3	1	C3	2	C3	1							C3	1	
C5	C5	2			C5	2	C5	3										C5	1	C5	1					C5	1	
C7	C7	2					C7	3										C7	1	C7	1	C7	1			C7	1	
D1	D1	2	D1	3	D1	1			D1	2	D1	2	D1	2	D1	1											D1	1
D2	D2	2	D2	2					D2	2	D2	3															D2	1
D3			D3	1											D3	2	D3	2									D3	1
D4	D4	2	D4	2			D4	1														D4	2	D4	1	D4	2	
D5					D5	1			D5	1								D5	1								D5	2
D6					D6	2								D6	3						D6	3	D6	3	D6	2	D6	3
# of need	28.6	4	50.0	9	50.0	8	60.0	6	50.0	7	40.0	4	40.0	4	42.9	6	55.6	10	50.0	8	38.5	5	38.5	5	40.0	6		
# of important	64.3	9	44.4	8	31.3	5	20.0	2	35.7	5	50.0	5	40.0	4	42.9	6	33.3	6	37.5	6	46.2	6	46.2	6	33.3	5		
# of critical	7.1	1	5.6	1	18.8	3	20.0	2	14.3	2	10.0	1	20.0	2	14.3	2	11.1	2	12.5	2	15.4	2	15.4	2	26.7	4		

<그림 6> JSSS의 데이터베이스

도를 구하는 계산식은 <그림 7>과 같다.

(2) JSSS의 모델베이스

JSSS의 세 가지 기능인 직무 추천 기능, 직무 달성도 제공 기능, 그리고 직무 달성도 향상을 위한 교과목 추천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모델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첫째, 직무 추천 기능으로서 부합도를 계산하였다. 특정 학생이 수강한 전공 교과목들을 토대로 13가지 타입의 직무 영역 중에서 가장 유사성이 높은 직무 영역을 탐색하기 위한 것

$$\text{부합도} = \frac{\sum_{i=1}^N C_i}{N} \times 100(\%)$$

$$C_i = \begin{cases} 1 & \text{If } (X_i = A_i) \\ 0 & \text{If } (X_i \neq A_i) \end{cases}$$

N = 전체 개설 교과목 수
 X = 해당 인재상 직무 달성 교과목
 A =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

<그림 7> 부합도 계산을 위한 MB

둘째, 학생의 특정 직무에 대한 달성도를 제 공하기 위해 달성도를 계산하였다. 특정 학생이 수강한 교과목을 토대로 구해진 부합도 점수에 기반한 세 가지 직무 타입에서 해당 학생이 특 정 교과목에서 취득한 학점을 토대로 해당 직 무에 따른 인재상에 얼마나 근접하였는가를 수 치화 하였다.

예를 들어, ‘갑’ 학생이 A 과목에서 ‘A+’, B 과목에서 ‘C0’를 취득하였고, ‘을’ 학생이 A 과 목에서 ‘C0’, B 과목에서 ‘A+’을 취득한 경우, 두 학생의 평점 평균은 동일하다. 하지만, 특정 직무 영역에서 A 과목과 B 과목의 중요도가 다 를 수 있기에 달성도 측면에서 ‘갑’ 학생과 ‘을’ 학생에게 서로 상이한 점수가 부여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수식은 다음 <그림 8>과 같 다.

$$\text{달성도} = \frac{\sum_{i=1}^N (W_i \times G_i)}{\sum_{i=1}^N (W_i \times c)} \times 100(\%)$$

N = 전체 개설 교과목 수
 W = 해당 교과목의 직무 달성을 위한 가중치
 {1=필요, 2=중요, 3=매우 중요}
 G = 해당 교과목에 대해 학생이 받은 학점
 {4.5=A+, 4.0=A0, 3.5=B+, 3.0=B0,
 2.5=C+, 2.0=C0, 1.5=D+, 1.0=D0}
 c = 최고 학점(상수, 4.5)

<그림 8> 달성도 계산을 위한 MB

셋째, 직무 달성도 향상을 위한 교과목 추천 기능을 위한 추천 점수를 구하였다. 특정 학생 이 수강한 교과목과 취득한 학점을 토대로 부 합도와 달성도가 구해짐으로써 해당 학생에게 적합한 직무 타입이 추천되고, 해당 직무 타입

에 얼마나 도달하였는가를 제시할 수 있다. 이 에 해당 학생이 특정 직무 타입에서 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달성도 향 상을 위해 어떤 교과목이 필요로 하는가를 추 천한다. 이 때, As-Is 수준과 To-Be 수준의 차 이(δ)가 가장 큰 순서대로 6개의 교과목을 추출 하고, 수강 여부에 따라 수강 과목과 재수강 과 목으로 분류하였다. 6개 교과목을 추천하는 이 유는 한 학기에 수강할 수 있는 수강 신청 학점 을 고려한 것이다. 이를 구하는 수식을 <그림 9>에 제시하였다.

달성도 향상을 위한 교과목 추천 = $\{X_1(\delta_1), X_2(\delta_2), \dots, X_n(\delta_n)\}$

0보다 큰 δ_i 중에서 큰 순서대로 6개까지 교과목 추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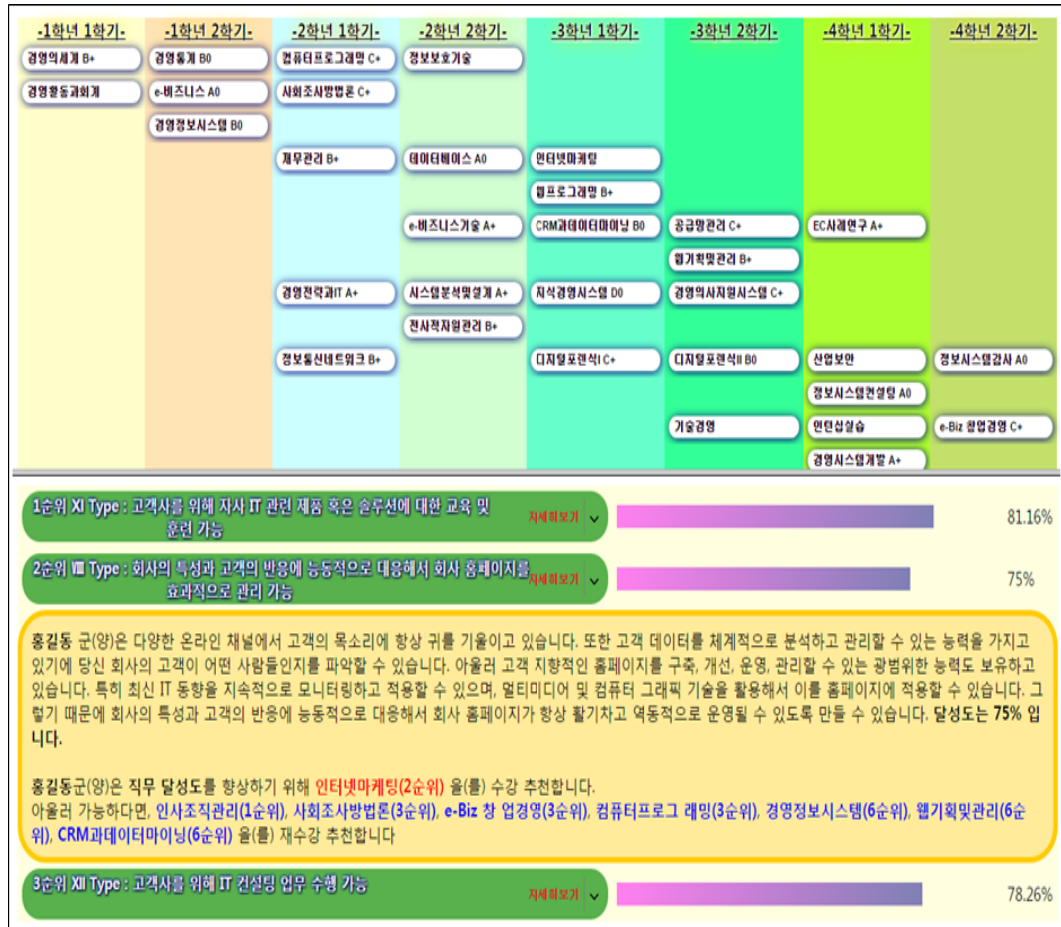
$$X_i = \begin{cases} \text{수강 추천 교과목} & \text{If } (X_i = 0) \\ \text{재수강 추천 교과목} & \text{If } (X_i \neq 0) \end{cases}$$

$\delta_i = (c - G_i) \times W_i$
 X = 해당 직무 달성 교과목
 n = 해당 직무 달성 교과목 수
 W = 해당 교과목의 직무 달성을 위한 가중치
 c = 최고 학점(상수, 4.5)
 G = 해당 교과목에 대해 학생이 받은 학점

<그림 9> 직무 달성도 향상을 위한 교과목 추천 MB

4.3 JSSS의 인터페이스

JSSS를 구현하기 위한 시스템 구현 환경은 <표 3>과 같다. 사용자 접근성 및 편의성을 위 해 인터넷을 통해 본 학과 학생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기반으로 프로토타입을 구축(<http://ec.kyungnam.ac.kr:8088/jsss>)하였 으며, <그림 10>과 같은 화면으로 구현되었다.



<그림 11> JSSS 실행 결과

제시되어 있다. ‘자세히 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개별 타입에 따라 본인이 어떤 직무를 수행할 수 있고, 어떤 능력이 배양되어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을 토대로 자기소개서 작성이나 면접 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직무 타입에서 보다 높은 학업 성취도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어떤 교과목이 필요하는가가 추천되어 있다. 해당 학생의 경우 현재 75% 달성된 ‘VIII 타입’에서 본인의 달성도를 최대한으로 높이기 위해서는 1순위로 ‘인사조직관리’를 재수

강해야 하고, 2순위로 ‘인터넷마케팅’을 추가적으로 이수해야 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지금까지 K대학의 e-비즈니스학과에서 추진된 교육과정 개발 절차와 결과물을 살펴보았다. 전공관련 직무를 기반으로 능력 중심의 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위해 수요자로서 학생 중심과 산업체 중심의 접근, NCS 기반의 교육과정 개

편에 대한 검토, 그리고 타대학 교육과정의 벤치마킹 등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결국 해당 학과가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 목표의 설정,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교육역량 강화, 그리고 학생들이 전공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교육과정은 학과 내부로부터의 고찰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논의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대학 e-비즈니스학과 교육과정 개편 사례를 통해 인재상과 직무 수행 영역을 범주화하고, 해당 직무를 달성하기 위한 능력 배양에 초점을 맞춘 교육과정 편성 결과를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이 본인의 직무 수행 영역을 탐색하고 직무 수행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맞춤형 진로 전략을 세우기 위한 직무탐색 지원시스템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트랙지도의 한계점을 극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즉, 특정 진로 트랙 혹은 진로 맵(map)에 구속되지 않고, 본인이 원하는 수업을 자유롭게 이수하고도 본인의 학습 능력에 부합되는 직무 추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일 수 있으리라 예상된다. 둘째, 전공에 부합되는 진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직무 기반의 문제 해결형 인재 양성이라는 취지에 맞추어 교과목들의 유기적인 결합과 중요도를 바탕으로 학생 개인이 보유한 전공 능력이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직접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가를 설명함으로써 면접 및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직무에 따른 맞춤형 전공 능력 성취를 위한 체계적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학 생활에서 자칫 전공 외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전공 능력 배양에 대한 낮은 애착을 보

이는 경우가 존재한다. 하지만, 본 교육과정 개편 결과를 통해 특정 직무 영역의 달성도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학과 내 소속감, 전공에 대한 자존감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에서는 단일의 전공을 전문적으로 공부한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능력을 겸비한 인재로서 국제적 감각, 실용적 능력, 문제해결 능력, 적용 능력, 그리고 나아가 인성을 겸비한 글로벌 인재상을 원한다(홍병선, 2012). 그렇기에 이들을 충족하기 위한 교육과정 개발은 교수법, 교육과정 운영 전반, 진로지도, 가치관 모두를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하는 종합적 의사결정 과정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교육과정 개발은 교과중심의 교육과정 개편이라는 소극적 측면에 머물렀음이 한계가 될 수 있다.

아울러 광범위한 경영정보학 관련 전공 영역과 해당 산업의 전체 영역을 반영해서 개발된 교육과정이 아니기에 본 연구 결과는 교육과정 개편을 수행함에 있어 학과 구성원의 의지와 정보시스템의 지원 측면에서는 핵심적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다른 경영정보학 관련 학과에서 교육과정을 개편하고자 할 때, 해당 학교 및 학과의 특수성과 상황이 서로 상이하기에 본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교육과정을 적용함에 보다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 향후 산업계와 괴리된 교육과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소수의 교수들에 의해 교육과정이 만들어지고 운영된다는 편견을 없애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은 끊임없이 개선되어야 하고, 무엇보다 교수들이 학계와 산업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정보 교류를 통해 끊임없이 연구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학과의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와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 경북대학교 하성호 교수님, 경상대학교 정대을 교수님, 고려대학교 김재영 교수님, 대구대학교 박상철 교수님, 동국대학교 주재훈 교수님, 이영찬 교수님, 부산대학교 홍태호 교수님, 신라대학교 문용은 교수님께(이상 학교명 가나다순)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문헌

강선보, “지식기반사회에서의 대학교육 개혁의 이념,” 교육문제연구, 제24집, 2006, pp. 49-71.

교육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학부교육 선도 대학 육성사업 우수사례집,” 2014.

구자길, 강순희, 『직업능력 표준과 자격』, 서울: 우정디앤피, 2011.

김도연, 권영중, 『새로운 대학을 말하다』, 매일경제신문사, 2011.

김혜영, “정보기술분야 NCS형 교과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제15권, 제4호, 2015, pp. 85-99.

박민정, “대학교육의 기능과 역할 변화에 따른 대안적 교육과정 담론 : 역량기반 교육과정의 교육적 함의,” 교육과정연구, 제26권, 제4호, 2008, pp. 173-197.

박종렬, “대학교육에 대한 산업체 만족도 조사 및 조사결과 피드백 체제화 방안 연구,” 교육정책연구, 2004, 교육인적자원부.

변경숙, 조영대, 김창섭,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 관광연구, 제30권, 제3호, 2015, pp. 125-150.

신정철, 윤세정, 정지선, 이소연, 정혜주, “우리나라 대학 전공교육과정의 구조적 특징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2011, pp. 69-91.

이성호, 『교육과정 개발의 원리』, 서울:학지사, 2004.

최길성, “역량기반의 전문대학 교육과정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0호, 2010, pp. 464-478.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교육과정 개정의 표준 절차에 관한 연구,” 2011. 12.

한혜정, 조덕주, 『교육과정』, 서울:학지사, 2012.

홍병선, “대학교육의 현실과 사회적 요구,” 교양교육연구, 제6권, 제2호, 2012, pp. 269-291.

오창규(Chang Gyu Oh)



부산대학교에서 상학사(경영학 전공, 전자계산학 부전공), 동 대학원에서 경영정보 시스템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남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조직내 정보기술의 수용, IT Happiness, e-비즈니스 모델링 및 전략 등이며, 본 연구를 계기로 맞춤형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흥걸(Hong Girl Lee)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공학사(물류시스템 전공), 동 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취득하고, 일본 도쿄 공대에서 경영정보시스템 전공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남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부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물류정보시스템, 지식경영시스템, 스마트워크 등이다.

김성후(Seong Hoo Kim)



경남대학교에서 전산통계 전공, 동 대학원에서 컴퓨터공학으로 석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경남대학교 e-비즈니스학과 조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주요 관심분야는 네트워크 보안, Hacking, Forensic 등이다

<Abstract>

A Study on Design and Operation of MIS Oriented Curriculum

Chang Gyu Oh · Hong Girl Lee · Seong Hoo Kim

Purpose

To meet changing social demands and fulfill the needs of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industry, the curriculum of MIS related department should develop and implement new conceptual frameworks. In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curriculum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Business at Kyungnam University.

Design/methodology/approach

We conducted a demands analysis of educational demanders, 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based curricular analysis, and benchmarking from other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lated departments. The expert panel committee consisting of e-Business department faculty members was held to examine and discuss the student-oriented curriculum developed during this study.

Findings

Results show that the contents and types of curriculum should be organized so that students can maximize their professional job competency to apply to their core professional tasks. Given these findings, we reconstructed the curriculum with both basic and advanced courses, all systematically organized according to the job requirements they offer toward meeting the industry's needs. We also implemented the web-based JSSS(Job Searching Support System) with which educational demanders can search among 13 job types, estimate their performances, and obtain the information about course registration. In all this study presents specific, practical evidence of the job-related curriculum for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e-Business at Kyungnam University.

Keywords: curriculum development, curricular analysis, job searching support system

* 이 기획 연구는 2015년 12월 13일 접수, 편집위원회의 2차례 검토를 거쳐 12월 24일 게재 확정되었습니다.